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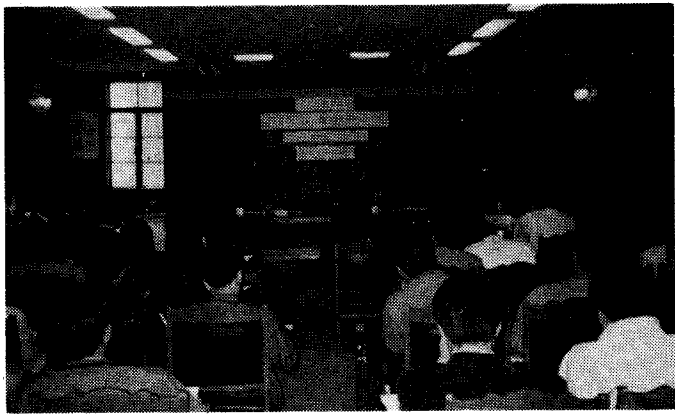
민족자결원칙에 입각한 민족구역 자치정책

강연초록... 중국 민족정책과 연변 조선족자치주 성립

조선족의 중국 이주과정은 학자들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현 조선족 세대의 2~3대 선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는 일제기 고조선말 고려 유민들이 이주한 뒤 만·한·통고족에 동화되었으므로 오늘날의 조선족과는 철저히 단절되었다는 점에서, 그 후 이조시대인 17세기 중엽~18세기 초에 중국으로의 이주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선족의 대량이주는 1860, 70년대에 이르러 나타난데 특히 1869~70년에 북방에 재해가 심하던 때에 조선인의 집단이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1910년 한일합방 이전에 연변에 약 10만여명이 거주하였음에 비해, 합방이후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 못지 않게 눈물을 흘리며 조국을 등진 조선인의 숫자는 1944년 광복직전에는 무려 1백65만여명에 달하였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파산된 농민을 주축으로 하여 애국청년, 학생들을 비롯한 적지않은 우익 지사로 구성되었다. 한편 광복이후 조선으로 다시 귀환한 인구는 명확하지 않은데 대략 20만 정도에 불과하고, 1945년 8월 15일 1백50만명 정도가 동북만주에 머물게 되면서 오늘날 연변자치주 성립의 근간이 된 것이다.

중국의 한 소수민족으로 개념화 되어있는 조선족의 역사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이 두드러진다. 첫째로 조선족은 토착민족이 아닌 월경(越境)민족으로서, 중국역사상 '자

동화사책을 펴는 것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조선족을 소수민족으로 대우하여 토지 소유권과 호주권을 부여하고, 반일제통일전선을 결성하여 조선에 민족정권을 수립한 후 민족자결원칙을 실시할 방침을 세운 것이다. 그외 함께 중국공산당에 속한 조선족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중국 혁명에 복무하는 한편, 조국 조



△ 사진은 김동화(강원원교)교수의 강연모습

조선독립항쟁속에 중국혁명 가담 과학적 인식에 기반한 전면적 역사서술 필요

취와 탄압과 함께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연변에 이주한 조선인의 이주원인 자체가 그랬듯이 본래 지녔던 배일 감정에 덧붙여 강한 반일사상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집단적 혹은 개별적으로 이주한 조선족은 자기생존의 필요성이라는 절박한 욕구 하에 집단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후에 독립운동의 기지역할을 하게 되는 한인촌락의 형성이 일제기부터 마련되었으며, 이는 항일연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만주지역 항일무장단체의 주력이 조선인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통

공산당대회에서 동맹위문제가 논의된 결과, 간도를 중심으로 한 연변지역에 한인자치구역을 설치하고, 반파시스트전선에 조선인의 통일전선조직을 호소한 중국 당 중앙의 '8.1선언' 이후 조직된 제1차 한인 조국광복회가 조직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은 조선족에 대한 민족자결원칙을 일관되게 천명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공산당이 이같은 민족구역자치정책을 실시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그 이유로서는 첫째 중국역사에서 과거 진시황제 때면이어서 온 중앙 집권제적 전통 때문이고, 둘째 비록 한족이 상대적으로 집권하고 있다 하지만 각 민족이 잡다하게 물려져 주하고 있다는 점이며, 셋째 장기간에 걸친 반제·반봉건투쟁에 중국내 각 민족이 단결하여 공동투쟁한 산물로 혁명 성공 이후 소수민족들이 자기권의 향상에 주력하는 길로 가는것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족 역시 1952년 8월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성립된 이래 문화혁명 당시 소수민족 탄압시기를 겪기는 했지만, 82년에 공포된 헌법에 의해 자치주의 권한이 확대되면 서부터 중국내 소수민족의 하나로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강연에 이어진 토론회에서 집중적으로 부각된 조선독립운동에서의 항일무장투쟁실상 및 그것이 차지하는 역사적 의의를 밝히는 가운데 논의는 다음과 같다.

그에 의하면 항일민족독립운동의 실상은 지금까지도 상당부분이 생략된 채로 남북한 정권의 편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술되어 왔다는 것이다.

즉 김좌진, 홍범도 등의 주도 하에 승리로 이른 청진리, 봉오리 전투가 조선족 역사상 빛나는 투쟁역사로 기록되어야 함도 당연하지만,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된 김일성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보천보 전투의 승리 또한 그 시대의 열악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혁명적 승리로 기록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런 과학적 인식에 기반한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역사서술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지적이 당연한 요청에 기인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실의 과잉이나 왜곡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하지만, 엄연히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존재부정을 내세우는 것은 비극적인 분단현실에 근본원인이 내재하고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나.

그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무정(無情)이 주도한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실상은 남북한 그 어느 역사서에도 '실존' 채로 남아있음을 보게 된다. 하지만 민족의 통일이라는 지상과제를 앞세운 이 땅의 지성인에게 충정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모두가 우리의 역사이다. 중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찬란한 민족독립운동의 역사는, 그 누구의 몫도 아닌 우리민족의 자랑스런 역사로서 갈라놓지 말자! 최소한도 있는 그대로라오.'

초청강연회에 다녀와서

在 중국교포 김동화교수(연변 대학교, 중국혁명사)의 중국민족정책과 연변조선족 성립을 주제로 한 초청강연회가 지난 30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김교수는 강연을 통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성립배경과 이를 기초로 한 항일무장독립운동의 전개과정을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설명하였고, 민족의 통일이라는 당위적요청을 앞둔 현

시점에서 남북한에서 일방적으로 강조되는 '분단론' 독립운동사의 서술방식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총체적이고도 전면적인 역사인식에 바탕을 둔 민족독립운동사의 재정립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文責: 강원택 記者)

과학적 이론과 실천의 산실

◇재야연구소를 찾아서 IV - 전문분야연구소(上)

- I. 종합연구소
- II. 종합사회연구소(上)
- III. 종합사회연구소(下)
- IV. 전문분야연구소(上)
- V. 전문분야연구소(下)

I. 농어촌사회연구소

'도시의 팽배'는 축소는 식품제국주의를 유도하는 정부의 농업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리더'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이하 농어연) 하현중(사무국장)씨는 앞서 김소현씨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렇듯 '농어연'은 지난 85년 5월에 문을 연 후 지금까지 농촌·농민·어민과 연계하여 활동중이다.

구체적 활동 성과로는 매년 가을 추곡생산비 산정고 농업문제 강좌, 농어민에 대한 상담활동, 공동 구매 판매 협회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소의 추곡생산비 발표는 '농민운동연합' 측의 수매가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한다.

현재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는 전면적인 농·수산물 개방이 소수 부농 중심의 농업구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앞으로의 전망을 세우는 것'이라 표현하는데 이를테면 현 1백80만호의 농가중 85%인 빈농이 수입개방에 의해 농경지로부터 축출될 것이라고 한다. 이와같이 '농어연'은 정부축이 부농중심의 농가민을 육성하는 것은 결국 한국농업의 해체와 축소를 조장하는 근본원인이 된다고 보고, 이는 식품소비패턴의 서구화를 초래하여 미농본향의 수출무기화' 내지 미자국의 경제위기가 전개'라는 농업제국주의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농업보호를 통한 자립경제를 추구하는 이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구기관은 농민을 위한, 농민에게 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객관적 연구작업을 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의 극복을 위해 '민간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이 연구소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또한 분과사업은 토지, 가격, 여성농민, 농민운동사, 어민으로 분화되어 '한국자본주의전과정에서 자본축적의 논리 및 방식의 변화과정' 농지정용론의 해명 '지주·소작관계'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의 활동과 성격' 등을 다룬다.

그러나, 연구과정에 정부축이 현농촌구조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거나 왜곡된 통계를 발표하는 등의 저해요소가 작용하여 기초 자료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지닌다고 한다.

II. 한국정치연구소

'우리의 학문적 행동은 결코 조국의 어떤 부분에 대한 모멸과 외세의 반격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한국정치연구소' (이하 한정연)는 '정치학의 민족화'

농어연
기형적
농업
정착
농업
민지
화
관심

모순·갈등
극복
위한
인식
토대
마련

평화
연

와 '정치학도의 조직화'를 내세우며 지난 87년 설립되었다.

'한정연'은 80년대를 민중이 민족사 발전의 주동력을 확보하고 민주화의 길은 결코 내려질 수 없다는 진리가 관철되었던 시기이고 자주화 운동의 싹을 틔웠으며 통일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시기'라고 평가한다.

지역·사상·정치·종교·현재정치·정치사로 이루어지는 분과사업은 '사회주의권 변화'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과 더불어 80년대 정치사 개관, 한미관계, 현재정세담론을 연구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III. 사회혁명연구소

'사회혁명'은 60년 4월에 완결된 것이 아니라 민족통일을 달성하는 그날, 비로소 그 이념이 정립되어 현재 진행형의 혁명'이라는 취지아래 '사회혁명연구소'는 지난 88년 6월에 창립되었다.

이 연구소는 '사회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나 혁명의 의미와 부각시켜 '평안도 연합농민'과 '경상도 농민' '감동농민전선' 등의 연합조직에서 '사회혁명'을 근대민주주의와 민족자주운동을 계승·발전시킨 역사적 실천으로 파악하고 있다.

황진(연구위원)씨는 발족당시 민족통일 연맹총선 15명과 교수15명 국민계통 7~8명등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변혁이론을 연구하는데 있어 당파성을 따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다'고 말한다. 또한 사회혁명'을 위해 '사회혁명 3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미술전·연극공연·문학의 밤·논문발표·단편소설집들을 준비하는 한편 30주년 행사이후 산실연구소로의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IV. 평화연구소

'평화는 막연한 바람이나 호소일 수 없다. 평화는 우리의 고난과 눈물을 딛고 일어나는 사랑속에 있으며, 그 사랑의 실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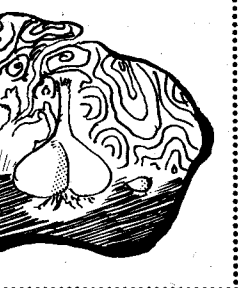
위와같은 취지아래 지난 88년에 설립된 '평화연구소'는 평화운동은 민족자주화와 민주화운동이며 분단을 넘어서는 민족통일운동'으로 파악하여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한 구체적 실천을 위해 분투하는 중이다.

'현대사연구운동' 평화운동 '살림운동'이 활동의 주축을 이루는 이 연구소는 대중이 주체가 되는 '현대사 바로알기운동'과 '반전반핵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대중의 삶에 뿌리내리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평화연구소'는 연구작업보다는 홍보·교육활동등 연대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왔으나 앞으로는 연구중심체제로 전환할 것을 계획·시도하고 있다.

(김유선 記者)

'인권 무풍시대'

옛 중국의 철학자인 맹자는 성선설을,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였다. 전자의 경우는 인간의 본성은 따돌하나 분지않은 깨끗하고 선하나 살다보면 환경에 의해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학설이고, 후자는 본성을 악하게 태어나나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교육을 받음으로써 선하게 된다는 것이다.



말무동까지 겹쳐 자살을 기도하는 주름살 짙게 패인 농민. 인간이 인간으로써 대접받지 못하고 한 날 두기로 전락해 사회의 조립품으로 기지하락돼 소위 '인권'이란 단어자체가 무색한 시대인 것이다. 그렇다한 신정권면적으로 업무에 충실한 우리 나라 경찰이라면 민생치안부재라는 말

이 나날이 없었어인데 강력범죄는 날로 늘어나고 민심이 점점 흉흉해지는 까닭이 결코 경찰의 태만과 무능력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임신 7개월 산부를 무차별 구타하여 유산케한 국가안전기획부의 천인공로할 작태가 아무런 처벌없이 묵과될 수 있는 사회이기에 그러한 것일까?

'뱃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다. 위에서 정치하는 이들의 도덕성이 바닥인데 그 아래에서 그들의 지시를 받아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야 오죽하랴. 같은 정치인이라하더라도 집권당의 뜻에 거슬리는 정파는 가차없는 처분을 당하는 유신때나 볼수있었던 정치테러조차 공공연히 행해지는 인권무풍시대이다.

말무동 두둑 도둑이나 전세값마련에 강도가 된 청년, 상부의 지시에 절대복종하는 경찰이 맹자가 제시한 인간형이라면 민자의 세기적 인물(?)들은 순자의 성악설에 부합하는 인간들의 전형에서 아직 순화되지 못한 무리라고나 할까?여하튼 사람이 사람을 치고, 때리고, 짓밟아도, 공정한 법집행이 없어도, 이렇듯 혼란된 가치속에 서도 우리는 무엇이 살고 있다. 침묵과 굴종으로!

"This is really Something!"

"이건 정말 굉장하군요!"



금성출판사
KAMP
KUMSUNG ART MEDIA PUBLISHING

■ 서울중앙판(주) 043-7575
성동227-8700/강남543-9405/강동477-5624/영등449-4336
정동418-1028/영등472-4116/영등485-6478/성북915-0112
영등483-0691/강서684-2545/동작275-4716/관악803-1177
구로853-0691/강서32-2161/서대문32-2706/영등483-3896
개봉884-9024/강서32-2161/서대문32-2706/영등483-3896
영등795-5623/한강866-4911/고덕478-8883/외곡735-4363
성남(0347)751-8333/성남443-9586/구리(0346)66-5588

문산(0348)841-2584/동두천(0351)75-2529/하남(0347)771-2360
원주(0331)42-2317/강릉(0337)72-3459/춘천(0335)754-2488
속초(0332)23-3356/제천(043)72-5393/태백(0335)52-2488
영월(0337)2-2449/동해(0334)32-4025
영월(0337)2-2449/동해(0334)32-4025
대진256-8482/동대진256-1938/서대진253-1847
천안(041)73-3883/충주(043)756-4806/서흥주(0431)3-8215
충주(041)73-3883/충주(043)756-4806/서흥주(0431)3-8215
충주(041)73-3883/충주(043)756-4806/서흥주(0431)3-8215
충주(041)73-3883/충주(043)756-4806/서흥주(0431)3-8215

■ 호남판(주) 062-222-9991
광주222-1834/남광주56-2617/서광주224-4082
여수(062)82-6382/진주(0552)84-6516/북진주75-3125
목포(061)2-4026/군산(0634)3-3282/해남(0634)2-2237
순천(061)744-2467/경주(054)72-3024/미리(0553)2-8810
남원(0571)32-7741/나주(0613)32-9716/진안(0553)2-2977

■ 경남판(주) 051-646-0385
부산646-9411/북부산889-4187/중부산42-8246/서부산889-5882
동부산866-9873/남부산82-7213/신부산483-6176
울산(0522)2-1918/동울산76-1102/남울산76-1100
대산(0551)55-0651/동대산55-2221/진주(0551)55-7637
충주(0551)72-3558/김해(0552)2478진해(0553)2-3881
창원(0551)83-2262/거제(0553)687-2510/거창(0554)6-4548
사하(051)247-2414/구포336-1881/양산(051)955-8855

■ 경북판(주) 053-625-0106
대구625-8185/동대구424-4887/서대구54-6618/북대구424-4880
대구425-5223/중대구628-5292/경산(053)83-1725
경주(054)3-8033/안동(054)52-0428/포항(054)75-1113
동포항75-6959/구미(054)52-2881/경북(054)72-2344
김천(054)72-1811/영천(054)33-4836/영주(054)72-2472
■ 제주(주) 064-51-2243
■ West Germany(서독, 프랑크푸르트) 49-69-2525-49

KBS TV 생활영어회화

Live Action English

강사: 강영은 (미국 Ohio 주립대학교 대학원 졸업)
(동독어대 영문학과 교수)

비디오테이프 10개 / 텍스트 5권

한국 최초의
본격 회화선집!
韓國近代繪畫選集
韓國畫(全13卷)
洋畫(別冊 포함 全14卷) 全27卷